

# 학교요인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중학생의 등교공포와 교내폭력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 은 희\*

## 초 록

본 연구는 학교요인과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등교공포'와 '교내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 727명이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등교공포'와 '학생들의 교내 폭력문제 심각성 인식'은 각기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교공포는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가장 강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학교에서 관찰한 위험행동은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를 거쳐 등교공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내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교내에서 관찰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과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학교환경에 의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실천적 함의와 함께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학교요인, 등교공포, 교내폭력의 심각성인식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I. 서 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문제는 사실상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현재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Olweus, 1994; Whitney and Smith, 1993; Austin and Joseph, 1996; Hoover and Hazler, 1991).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08)에 따르면 1년간 1회 이상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2006년도 17.3%에서 2007년도 21.8%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수록 흉포화 저 연령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동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광범위한 범위의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적응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폭력피해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교결석, 학교활동의 기피,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Baker and Stryk, 1984).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90.0%는 등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감소하여 학교성적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oover, Oliver and Hazer, 1992), 이 가운데는 학업유지가 어려워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이종복, 1997).

지금까지 행해진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집단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었고, 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중요한 장소이면서 학생들의 희생을 예견할 수 있는 학교요인에 대한 탐구는 소홀하였다. 학교는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상관없이 학교 내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 조절을 통하여 학교에 만연한 폭력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한 연구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학교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관련 배경변수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희생과 희생의 결과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없이 학교배경변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의 개입만으로도 학교폭력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요인, 학교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폭력피해의 결과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려고 한다. 즉 연구모델을 통하여 어떻게 학교요인이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요인과 폭력피해 경험이 두 개의 종속변수(등교공포, 교내폭력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교공포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 얼마나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오직 학교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학교요인의 조절을 통한 학교폭력피해와 그 후유증 경감을 위한 개입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요인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학교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학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Mortimore, 1995)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방식이 학교를 통한 것이 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Elliott, Hamburg and Williams, 1998).

많은 선행연구(Astor, Meyer, and Behre, 1999; Astor, Benbenishty and Vinokur, 2002; Benbenishty, et al., 2002)들에서 여러 학교 관련변인들이 학교폭력 피해와 그것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교요인 가운데 『학생들이 목격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과 『학교 분위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학교요인 가운데 먼저 『학생들이 목격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또래집단의 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에서 또래집단들의 위험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목격한 학생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학교

내에서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 연구결과들이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변수들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Griffith, 1995; Wiist, Jackson, and Jackson, 1996; Astor, Benbenishty, Haj-Yahia, 2002). 즉 또래집단이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고, 교내에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은 공포심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학교에 심각한 폭력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학교요인인 『학교 분위기』의 구성요소로는 폭력에 대한 일관성있는 학교 정책(Meyer and Leone, 1999);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지(Astor, 1998); 의사결정에 학생의 참가(Hyman and Perone, 1998)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분위기와 조직특성이 학생들이 행동하고 느끼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Lee and Croninger, 1995; Hyman and Perone, 1998; Gladden, 2002)가 많다. 학교 분위기와 조직특성은 폭력과 혼란을 조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Mayer and Leone, 1999). 기강과 품행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의 존재와 시행은 학교 폭력문제를 규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정책과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은 안전감을 가지며 자신의 학교에는 심각한 폭력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문용린, 2006).

폭력 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학교환경의 또 다른 면이다. 교사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쉽게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학교폭력에 관한 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박정효 외, 2008). Garnezy(1991)에 의하면 학교 분위기 자체가 반응적 분위기로 뚜렷한 규범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반면에, 지지적 환경이 부재하고 심각한 경쟁적 분위기, 그리고 학교폭력의 발생 시 학교당국이 보여주는 적절한 제재조치의 부족, 무관심, 방조 등의 대응은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상징적 또는 암묵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학생들에게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폭력을 선택하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피해학생들에 대한 동정심의 감소, 비하적 태도, 죄책감의 인식부족 등을 가져오게 한다(이상균, 1999; Moos,

1991). 그런데 교사들이 엄격한 기강과 단호한 규율을 상명 하달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도리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Hyman and Snook, 1999), 인간적이고 따뜻한 접근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사가 자신들에게 협조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학교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장려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여 교내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Devine, 1996; Astor et al. 2002).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참여 기회가 많을수록 학생들은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적을수록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Flannery, 1997).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학교요인(학생들이 목격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과 학교분위기: 학교 정책,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의사결정에의 학생참여)이 학교폭력 문제발생과 등교공포 그리고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없이 학교에서의 역할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의 개입만으로도 학교 폭력문제의 발생과 그 예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2. 폭력피해로 인한 등교공포와 교내폭력문제의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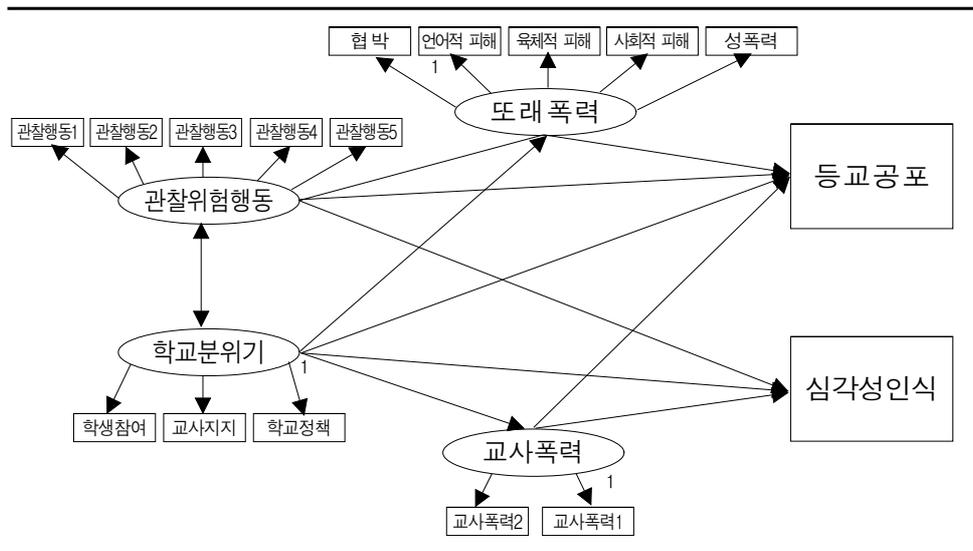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1998; 안재록, 2003; 이명자,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요인과 학교 폭력피해의 형태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는 폭력과 관련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지 못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심각한 교내폭력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등교공포를 가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학업과 학교 경험에 전체적으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학교관련변수와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교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도록 하고, 그리고 등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결석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석을 한다는 것은 교내 폭력에 대한 강력한 감정적 대응 혹은 교사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느낌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군다나 결석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학문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Benbenishty et al., 2002).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학교와 일체감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의 정도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진 부모, 교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학교폭력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한 등교기피와 학교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학교들은 학교 개혁과 반 폭력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폭력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들의 대상이 될 것이다(Alvarez and Bachman, 1997; Arnette and Walseben, 1988). 선행 연구결과들(Astor, 1998; Cairns and Cairns, 1991; Griffith, 1995; Guerra and Tolan, 1994; Martin, et al., 1996; Olweus, 1993; Slaby, et al., 1994; Wiist, Jackson, and Jackson, 1996)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이 그들의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교환경 자체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폭력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공포심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 학교관련 변수는 학교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즉 사회복지사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은 학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이웃이나 가정과 같은 다른 환경에 대한 개입 없이도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학교요인과 개인적인 폭력피해 경험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느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요인, 폭력피해 경험, 그리고 폭력피해의 결과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즉 학교요인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희생의 두 가지 주관적인 결과(폭력희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등교공포,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요인과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등교공포와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한다. 즉 어떻게 학교요인이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요인과 폭력피해 경험이 등교공포와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근거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는 편의 표집 방법에 의해 우리나라 6대 광역시 가운데 한 곳인 울산시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된, 남구 16개, 중구 11개, 동구 9개, 북구 13개, 그리고 울주구 13개의 중학교 중에서 각 구에서 2개교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각 학교 내에서 또 무작위로 2개 학급씩을 추출하여 남학생 390명, 여학생 348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2월 15일에서 12월 2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해당학교 2학년 담당 부장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장교사의 도움으로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배포된 총 738부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 되었으나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11부를 제외하여 총 727부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남학생 384명, 여학생 343명이다.

## 3. 조사도구

### 1) 학교요인

본 연구에서의 학교요인은 학교에서 목격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과 ‘학교분위기’로 구성되어있다. ‘학교분위기’는 명료하고 공평한 교칙,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그리고 학교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 (1) 관찰된 또래집단의 위험행동

관찰된 또래 집단의 위험행동은 Benbenishty, Astor, Zera, 그리고 Vinokur(2002)가 캘리포니아 학교환경과 안전성 조사(California School Climate and Safety)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또래집단 간의 학교에서의 싸움’, ‘폭력동아리 존재’, ‘음주’, ‘위험한 물건의 반입’과 같은 문제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자주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을 목격한 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784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 (2) 학교분위기

학교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enbenishty 외(2002)가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연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학교환경과 조직의 여러 측면에 대해 그들의 지각을 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분위기 척도는 학교폭력 감소에 목표를 둔 학교정책 혹은 절차에 관한 학생들의 판단에 관한 질문인 '명료하고 공평한 교칙과 학교정책의 존재', 교사의 학생과의 지지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인 '지지적인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는데 학생들이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학교정책과 결정에 학생들의 참여'의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에 따라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697에서 .770으로 나타내어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 2)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enbenishty 외(2002)가 사용한 설문지 문항 가운데 친구집단에 의한 폭력피해경험과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경험 부분을 일부 우리 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친구에 의한 폭력피해는 '육체적 피해', '협박', '언어적 피해', '사회적 피해' 그리고 '성폭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에 의한 폭력은 '육체적 피해'와 '언어적 피해'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서 0- 그런 적이 없다에서 4- 6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피해 경험도 높다. 본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652에서 .798로 나타내어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 3) 등교공포

등교 공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는지’와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싫고 무서웠던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두 문항의 합산한 값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Likert 4점 척도에 따라서 1- 전혀없다, 4- 3번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등교 공포가 높은 것이다.

### 4) 교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교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학교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응답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서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5- 매우 심각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4.0과 AMOS 7.0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들간의 관련성 및 관계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요인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등교공포와 교내폭력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용하였다.

## IV. 조사결과의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384명(52.8%)과 여학생 343명(47.2%)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적은 상위권이 158명(21.7%), 중위권이 398명(54.7%), 하위권이 171명(23.5%)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27)

		빈도	%
성별	남	384	52.8
	여	343	47.2
성적	상	158	21.7
	중	398	54.7
	하	171	23.5
아버지 학력	초졸 이하	12	1.6
	중졸	34	4.7
	고졸	389	53.5
	대졸 이상	248	40.1
어머니 학력	초졸 이하	8	1.1
	중졸	42	5.8
	고졸	429	59.0
	대졸 이상	248	34.1
경제력	상	94	12.9
	중	589	81.0
	하	44	6.1
부모 결혼상태	부부동거	658	90.5
	이혼	30	4.1
	별거	12	1.7
	사별	10	1.4
	재혼/기타	17	2.3
건강상태	건강 나쁨	34	4.7
	그저 그런 편	322	44.3
	건강함	371	51.0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89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이 429명(59.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력은 중간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589(81.0%)로 가장 많았고, 상 94명(12.9%), 하 44명(6.1%)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양쪽 부모가 모두 같이 사는 경우는 658명(90.5%)이고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한 부모나 부모 중 한명이 계부모인 경우가 69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지각하는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371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런 편 322명(44.3%), 건강이 나쁜 편이 34명(4.7%)으로 나타났다.

## 2. 학교요인, 폭력피해 경험, 등교공포, 심각성 인식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수인 학교요인, 폭력피해 경험, 그리고 등교공포와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등교공포는 학교에서 목격한 또래의 위험한 행동과는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상관성이 나타났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에 속하는 학교정책, 교사지지, 학교정책에의 학생 참여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들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는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협박과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폭력, 성폭력, 육체적 폭력, 교사폭력, 언어적 폭력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등교공포는 학교에서 또래의 위험한 행동을 많이 목격했을수록, 그리고 본인들이 학교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부정적일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2> 학교요인, 폭력피해 경험, 등교공포, 심각성 인식의 상관관계

변인		위험 행동	학교 정책	교사 지지	학생 참여	협박	언어 피해	육체 피해	사회 피해	성 폭력	교사 폭력	등교 공포
학 교 요 인	위험 행동	1										
	학 교 분 위 기	학교 정책	-.320**	1								
		교사 지지	-.280**	.563**	1							
		학생 참여	-.233**	.473**	.474**	1						
폭 력 피 해 경 험	또 래 폭 력	협박	.430**	-.080*	-.150**	-.086*	1					
		언어 피해	.319**	-.075*	-.105**	-.063	.540**	1				
		육체 피해	.386**	-.124**	-.180**	-.108**	.695**	.683**	1			
		사회 피해	.307**	-.140**	-.178**	-.137**	.536**	.461**	.567**	1		
		성 폭력	.358**	-.134**	-.232**	-.109**	.485**	.261**	.444**	.489**	1	
	교사 폭력	.373**	-.287**	-.354**	-.189**	.412**	.267**	.329**	.380**	.458**	1	
등교공포	.329**	-.170**	-.187**	-.126**	.512**	.322**	.432**	.465**	.463**	.349**	1	
폭력 심각성 인식	.412**	-.160**	-.133**	-.202**	.229**	.204**	.184**	.130**	.102**	.126**	.218**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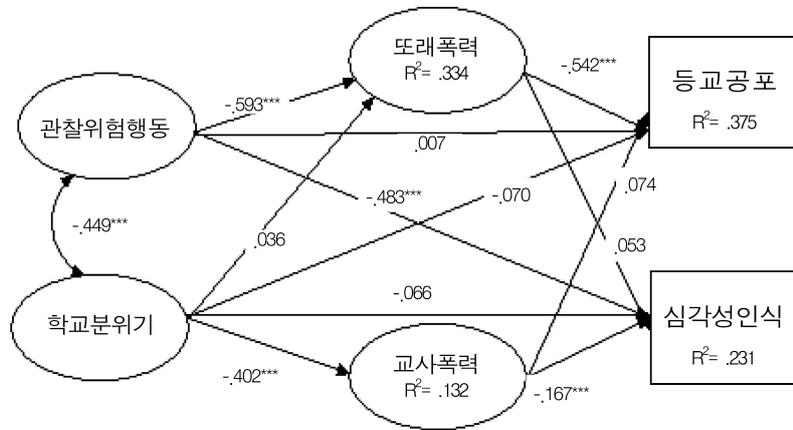
\* 상관계수는 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등교공포와 유사하게 학교에서 목격한 또래의 위험한 행동과는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상관성이 나타났고, 긍정적인 학교분위기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 경험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성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협박과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언어적 피해, 육체적 피해, 사회적 피해, 교사폭력, 성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또래의 위험한 행동을 많이 목격했을수록, 그리고 본인들이 학교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자신들의 학교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학교분위기와 폭력피해 경험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분위기가 긍정적이면 폭력피해도 낮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만은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만 알 수 있을 뿐 변수들 간의 자세한 연결 관계는 밝히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학교요인과 폭력피해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등교공포와 학교폭력 문제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등교공포와 교내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학교요인과 폭력피해경험의 영향분석

학교요인이 학교폭력 피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떻게 학교요인과 폭력피해경험이 학생들의 등교공포와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이 전체 샘플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합도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 = 648.608$ ,  $df = .109$ ,  $GFI = .901$ ,  $AGFI = .862$ ,  $TLI = .853$ ,  $CFI = .882$ ,  $RMR = .066$ ,  $RMSEA = .083$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GFI$ ,  $AGFI$ ,  $TLI$ ,  $CFI$  등이 .90 이상,  $RMR$  지수가 .05 이하,  $RMSEA$  지수가 .08 이하일 때 구조방정식이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배병렬, 2002) 비하여 연구모델의 모형 적합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

오차항 수정을 거친 후 수정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니  $\chi^2 = 280.887$ ,  $df = 102$ ,  $GFI = .957$ ,  $AGFI = .935$ ,  $TLI = .948$ ,  $CFI = .961$ ,  $RMR = .030$ ,  $RMSEA = .049$ 로 나타나 오차항 수정을 거친 수정모형이 전체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전체 샘플에 대한 수정 모델의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예측했던 것처럼 관찰된 위험행동은 긍정적인 학교환경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 $\gamma = -.449$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등교공포’와 ‘학생들의 교내 폭력문제 심각성 인식’은 각기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델의 종속변수에 속하는 ‘등교공포’는 연구모델의 변수들에 의해 38%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공포는 또래폭력에 의한 희생에 직접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을 받고( $\beta = .542$ ),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에 의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관찰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은 등교공포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교공포는 긍정적인 학교환경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교공포는 학교에서 또래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출석율을 높이려는 개입에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폭력피해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교내에서의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도 등교공포를 낮추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모델의 또 다른 종속변수인 ‘교내폭력에 대한 심각성인식’은 연구모델의 변수들에 의해 2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인식은 학교에서 목격한 또래들의 위험한 행동에 의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고( $\beta = .483$ ), 교사에게 의한 폭력희생에 의해서도 유의미한 영향( $\beta = -.167$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친구에 의한 폭력희생에 의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고, 긍정적인 학교환경에 의해서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고 교사폭력피해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내 폭력의 심각성인식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측은 학교에서 목격되는 또래 집단의 위험한 행동을 줄이고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요인과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등교공포’와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등교공포’와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학교에서 목격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 긍정적인 학교환경, 폭력피해경험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등교공포와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요인과 폭력피해 경험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종속변수인 ‘등교공포’와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의 ‘등교공포’는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에 의

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고 학교에서 관찰한 위험행동은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등교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래집단에 의한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목격하게 되는 또래들의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낮추어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등교공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조직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왔다(김덕문, 2007; 박상도, 2001; Olweus, 1994).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할 때 학생들의 폭력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한 등교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폭력피해가 개입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또래 폭력 발생의 예방에 유의하고, 폭력 발생 시에는 피해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원조할 수 있는 대책강구와 피해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조하는 것이 등교공포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등교공포’는 본 연구모델의 변수들에 의해 38%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학교에서 관찰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고 교사에 의한 폭력희생경험에 의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학교의 긍정적인 환경은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내 폭력의 심각성인식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측은 학교에서 목격되는 또래 집단의 위험한 행동을 줄이고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내폭력에 대한 심각성인식’은 연구모델의 변수들에 의해 2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등교공포’와 ‘교내폭력에 대한 심각성인식’은 각기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문화권에서 실시된 선행연구결과들(Astor et al., 2002; Benbenishty et al., 2002)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보다 정서적인 변수인 ‘등교공포’는 또래에 의한 직접적인 학교폭력희생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보다 인지적인 변수인 ‘교내폭력에 대한 심각성인식’은 학교에서 관찰한 또래집단의 위험한 행동과 같은 학교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의 특이한 결과는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학교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나 선행연구 결과(Chapman and Elsten, 2000)와는 달리 또래집단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은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경험만 심각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은 심각성 인식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폭력을 많이 경험한 집단 일수록 학교에 폭력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유대계와 아랍계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Benbenishty et al., 2002)에서 아랍계청소년들은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이 낮을수록 학교에 폭력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하여, 유대계 청소년들은 본 연구결과와 같이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인종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교사에 대한 기대와 교사에 의한 폭력 그리고 학교폭력을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의 유교적인 교육관의 영향으로 교사폭력을 훈육으로 인식하고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유추된다. 그러나 이처럼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학교에 폭력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폭력피해자나 가해자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은 학교 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학교분위기와 같은 학교 내적인 요인이 학교폭력피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등교공포’와 ‘폭력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의 통제 하에 있는 학교 내 변인에 대한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에 학문적 함의를 찾을 수 있겠다.

둘째,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많은 개입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학교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학교에 초점을 맞춘 개입방안들도 구체

적인 개입보다는 학교의 전반적인 조직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실천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등교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책보다는 친구들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을 감소시키고 학교에서 관찰 가능한 친구들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내 폭력문제 심각성 인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관찰 가능한 친구들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학교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문제의 발생과 피해 그리고 그 결과는 학교의 규모나 소재지(소규모의 시골학교 혹은 대규모의 도시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특정 광역시의 중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시 농촌을 모두 포함하는 전국적 규모의 연구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에만 근거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 뿐 아니라 학교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원인 교사나 교장 등 교직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학교폭력의 발생과 그리고 폭력문제에 대한 개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직원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과 교직원 사이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가 학교 폭력의 발생과 그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학교에 폭력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추후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교 내적인 요인과 학교외적인 요인들(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모델의 개발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덕문(2006)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8) 학교분위기가 중학생의 등교공포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 151-176.
- 박상도(2001) 청소년 학교폭력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효 · 박효중 · 정미경(2008)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스트레스연구. 한국교육, 제34권 제2호, pp. 3-25.
- 문용린(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 안재록(2003)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비교.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자(2004)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비교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종복(1997)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9권 제2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 (2006) (2008) 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 Alvarez, A. and Bachman, R.(1997) Predicting the fear of assault at school and while going to and from school in an adolescent population, *Violence and Victims, Vol. 12*, pp. 69-86.
- Arnette, J. Walseben, M.(1998) *Combating fear and restoring safety in schools*. S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Astor, R, A.(1998). Moral reasoning about school violence: Informational assumptions about harm within school subcontexts.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33*, pp. 207-221.

- \_\_\_\_\_, Benbenishty, R., Marachi, R., Haj-Yahia, M.m Zeira, A., Perkins-Hart, S., et al.(2002) The awareness of risky peer group behaviors on school grounds as predictors of students' victimization on school grounds: Part I—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School Violence, Vol. 1 No. 1*, pp. 11-33.
- \_\_\_\_\_, \_\_\_\_\_., Zeira, A., & Vinokur, A.(2002) School climate, observed risk behaviors, and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fear and judgment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Vol. 29 No. 6*, pp. 716-736.
- \_\_\_\_\_, Meyer, H. A., & Behre, W. J.(1999) Unowned places and times: Maps and interviews about violence in high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6*, pp. 3-42.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6*, pp. 447-456.
- Baker and Siryk.(1984)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Vol. 4*, pp. 79-100.
- Benbenishty, R., Astor, R. A., Zera, A. and Vinokur, A.(2002) School climate, observed risky behaviors and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highschool students' fear and judgment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Health Educations and Behavior, Vol. 29 No. 6*, pp. 71-87.
- \_\_\_\_\_, \_\_\_\_\_, \_\_\_\_\_, & \_\_\_\_\_.(2002) Perceptions of violence and fear of school attendance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Israel. *Social Work Research, Vol. 26 No. 2*, pp. 71-87.
- Cairns, R. B., & Cairns, B. D.(1991) Social cognition and social network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D. J Pepler & K.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249-27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hapman and Elsten.(2000) Antisocial behavior, academic failure, and schoolclimate: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motional Behavioral Disorders, Vol. 8 No. 3*, pp. 130-140.

- Devine, J.(1996) *Maximum security: The culture of violence in inner-city scho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annery D. J.(1997) *School violence: Risk, prevention and policy* (urban Diversity Series No. 109), New York: Institute for Urban and Minority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16272)
- Garmezzy.(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s and stressed environment. *Pediatrics, Vol. 20*.
- Gladden, R. M.(2002) Reducing school violence: Strengthening student programs and addressing the role of school organizations. *Review of Research on Education, Vol. 26*, pp. 263-299.
- Griffith, J.(1995) An empirical examination of a model of school climate in elementary school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7*, pp. 97-117.
- Guerra, N. G., & Tolan, P. H.(1994) *What works in reducing adolescent violence: An empirical review of the field*. (Report #F-888). Boulder: University of Colorado,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 Hoover, J., & Hazler, R. J.(1991) Bullies and victims.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Vol. 25*, pp. 212-219.
- \_\_\_\_\_, Oliver, R., & Hazler, R. J.(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13*, pp. 5-16.
- Hyman, I. A., & Perone, D. C.(1998) The other side of school violence: Educator policies and practices that may contribute to student misbehavior.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6*, pp. 7-27.
- \_\_\_\_\_, & Snook, P. A.(1999) *Dangerous schools: What we can do about the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of our children*. San Francisco: Jossey-Bass.
- Lee, V. E., & Croninger, R. G.(1995) *The social organization of safe high schools*. Paper presented at the Goals 2000 Conference, Reauthorizat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Palm Beach, FL.

- Martin, S., Sadowski, L. S., Cotten, N. U., & McCarraher, D. R.(1996) Response of African-American adolescents in North Carolina to gun carrying by school mate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6*, pp. 23-26.
- Meyer, M. J., and Leone, P. E.(1999)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 violence and disruption: Implications for creating safer schools.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Vol. 22*, pp. 333-356.
- Moos(1991) Predicting violence from school misbehavior: Promises and peril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38*, pp. 173-184.
- Mortimore(1995) Teachers' reasoning about school violence: The role of gender and loc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7*, pp. 499-528.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_\_\_\_\_.(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5*, pp. 1171-1190.
- Slaby, R. G., Barham, J. E., Eron, L. D., & Wilcox, B. L.(1994) *Policy recommendation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youth violence*. In L. D. Eron, J. H. Gentry, & P. Schlegel (Eds.), "Reason to hope" *A psychosocial perspective on violence and youth*. (pp. 447-45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hitney, I., & Smith, P. K.(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Vol. 35 No. 1*, pp. 3-25.
- Wiist, W. H., Jackson, R. H., & Jackson, K. W.(1996) Peer and community leader education to prevent youth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12*, pp. 56-64.

## ABSTRACT

### School Factors and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ear of School Attendance and Judgment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Lee, Eun-Hee\*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create an exploratory model to investigate how variables in school setting affect school victimization and the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fear of attending school and the student's assessment of the severity of school violence.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the 8th grade from Ulsan city. Student's fear of attending school due to violence was directly related to experiences of personal victimization by students. In contrast with the fear factor, student's judgments of their school's overall violence problem we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variables of observed risk behaviors and personal victimization by students and teachers. According to these findings,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elucidate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suggested.

**Key Words** : school violence, school factors, fear of school attendance, judgement of school violence as problem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7월 15일, 심사완료일 : 8월 7일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 (leh@dongguk.ac.kr)